

2003. 9. 19(금) 10:00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가조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견
심사결과보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조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심사 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도시계획은 1979년도 최초 수립되어 1995년도에 한 차례 수정한바 있으며, 이번 재정비는 두 번째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변경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총면적 893,735제곱미터에서 이 중 일반주거 지역은 485,032제곱미터에서 472,315제곱미터로 변경함으로 인해 12,717제곱미터가 줄어들고, 상업지역은 24,940제곱미터에서 34,260제곱미터로

9,320제곱미터가 늘어나고, 또 생산녹지지역 850제곱미터와 자연녹지지역 2,547제곱미터가 종전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용도지역간의 면적 변경이 발생한 이유는 기존 주거지역과 가조 2교 사이 8,443제곱미터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활성화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계획변경안의 주요 핵심내용이며,

그 외 나머지는 고견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도로의 선형변경, 노선연장·축소, 학교시설의 변경 등으로 지역 간에 다소 증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의 용도 세분화입니다.

새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거창군계획조례에서 정한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377,111제곱미터로서 상마, 중마 1·2구, 방촌, 월촌 등 기존 마을이 해당되며 동 지역에서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95,204제곱미터로서 학교시설용지와 지방도 1082호선 주변이 해당되며, 동 지역에서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12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시설 결정입니다.

도로의 선형변경과 노선연장·축소 등이 총 14건이며, 익천고등학교 부지면적 증가, 고견천 하천연장 변경, 공원과 주차장 면적 확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17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제시한 의견 중에서 마상토지구

획정리사업은 사업성과 지주들의 비협조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하므로 포기하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시가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가지 우회도로 대3-1호선의 노선폭을 25m에서 20m로 축소하고, 방촌마을 진입도로로 계획된 소1-1호선은 폐지하되, 현재 사용중인 기존도로를 계획도로로 지정하는 문제와 소방파출소 예정부지는 학교시설과 근접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학교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네 가지의 추가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동 변경 계획안에 다시 담아 도시계획 전문가 등의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거창군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토론 등 충분히 거쳐서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